

지역 소식통



제6회 모양 청소년 오케스트라 연주회 성료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고창문화원(원장 조기환)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제6회 모양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지난 10일 고창 문화의전당에서 열렸다.

이번 정기연주회는 지휘자와 단원 학생들을 포함하여 약 70여명이 참여했다. 세대별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유명한 영화 음악과 연주곡을 선곡하여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6명이 참여한 모양 청소년 오케스트라 슈베르트의 군대행진곡 등 총 8곡의 선율을 선보이고, 고창문화원 민요반과 합동으로 오케스트라 연주로 편곡된 민요를 함께 감상할 수 있었으며 약 1시간정도 진행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 신청 서비스 시행

부안군은 오는 2023년 1월부터 지방세 환급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카카오톡 지방세 환급 신청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기존 전화·방문·위택스·정부민원 24 등을 통해 신청받아 왔으나,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스마트폰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환급 신청'을 추가했다.

군은 지방세 환급과정에서 소액환급금에 대한 저조한 관심으로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여러 번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의 행정 낭비 요인을 없애고, 납세자 중심의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 해당 서비스는 지방세 환급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가 카카오톡 채널에 '부안군 지방세 환급금'을 검색하고 신청하면 된다.

/부안=김석진 기자

# 조사료 생산 · 공급 기반 마련

### 정읍시, 농축산부 주관 '조사료 전문(특화)단지' 공모 선정... 총사업비 11억3천만원 확보

정읍시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조사료 전문(특화)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되며 내년도 사업비 11억3,000만원을 확보했다.

'조사료 전문(특화)단지 조성사업'은 조사료 재배의 규모화 및 집단지화를 통해 안정적인 조사료를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지정 이후 5년 이상 조사료 생산이 가능한 곳이다.

시는 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조사료 지원비와 조사료 기계장비, 종자 구매비용, 퇴액비 살포 비용 등 5

년간 총사업비 11억3,0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5년간 입양면 일원에 250ha 재배를 목표로 동계작물 IR(이탈리안 라이그라스)과 하계작물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을 재배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조사료 전문단지 조성사업에 선정돼 감곡면 일원 200ha 규모 단지에서 조사료를 생산하며 사료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정읍시 조

조사료 전문단지는 총 2개소가 되면서 규모화·집단지화 재배지를 바탕으로 조사료를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시 관계자는 "최근 기상이변과 환율 상승,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한 곡물 가격 인상에 따라 축산농가들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전문단지 선정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수익 증대에 도움이 될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

##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해야”

### 전국원전동맹, 정례회 열고 결의문 채택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김재운 부산 금정구청장)이 2022년 정례회를 열고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문을 채택하며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이하 전국원전동맹)은 2019년 10월 설립되어 원전 인근 지역 16개 기초자치체, 314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는 단체이다.

전국원전동맹은 12일 오전 11시 영상회의를 통해 2022년 정례회를 열고 내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된 뒤,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등을 위한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민정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전국원전동맹은 결의문을 통해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신속한 국회통과 △원전 정책에 원전 인근자치체 참여 제도적 보장 등을 촉구했다.

전국원전동맹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국민의 6%에 해당하는 314만 국민들에 대한 최소 보상이며,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지방 재정 분권에도 부합하므로 조속히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년 발의된 법안에는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0.18% 인상하고 이것으로 원자력안전교부세를 신설하지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2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한편 올해 6월 지방선거로 동맹 16개 지자체 중 10개 지자체 단체장이 변경

되고, 회장도시인 울산 중구청장과 부회장인 부산 금정구청장이 교체되었으나 같은 부회장이인 전북 부안군수는 재선으로 연임, 회원도시 민정일치로 임원진 승계가 추진되어 2023년 10월 22일까지 울산 중구청장과 전북 부안군수, 부산 금정구청장이 전국원전동맹을 이끌어 가게 되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부회장이인 권익현 부안군수는 "최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심각한 공극으로 가동중지되었던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등 여러 원전 관련 이슈로 우리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원전으로 인한 위험에 상응하는 보상을 주민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의 조속 통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세계잼버리”

### 부안군, 세계잼버리 관광코스 개발 팸투어 개최

부안군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스카우트 지도자 25명을 초청하여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이하 세계잼버리) 관광코스 개발을 위한 팸투어를 가졌다.

세계잼버리 관광코스 개발 팸투어는 부안군의 관광지와 직소천, 부안영상테마파크 등 영외과정활동장소의 접목을 통해 새로운 부안군의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번 세계잼버리 관광코스 개발 팸투어에 참석한 지도자들은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연맹 소속 지도자들로 잼버리 이후 수도권 관광객들에게 흥미를 끌 수 있는 관광코스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먼저 내소사와 출포만갯벌생태공원을 접목한 자연현황 프로그램, 직소천과 인공암벽등반장을 접목한 체험링, 청자박물관과 부안영상테마파크를 접목한 문화링 프로그램 등 세계잼



버리 이후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이 오갔다.

이번 팸투어에 참가한 전성안 전범스카우트회장은 "부안의 아름다운 자연과 먹거리, 즐길거리를 세계잼버리 관광코스로 잘 개발한다면, 잼버리 이후 많은 청소년들의 재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세계잼버리를 기회로 삼아 부안군민의 멋과 맛이 살아있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세계잼버리 관광코스 개발을 통해 잼버리가 끝나고도 국내·외 관광객들이 다시 부안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이학수 정읍시장, 새해 달라지는 시책 홍보 당부



이학수 시장이 내년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정책, 제도나 법령 중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 시장은 12일 오전 열린 영상 간부회의에서 "2023년도부터 달라지거나 새롭게 시작되는 각종 정책, 제도나

법령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거나 알지 못해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겨울은 추운 날씨로 인해 난로와 전기장판 등 난방기와 화기 사용이 급증하는 계절"이라며 "작은 방심으로 인해 대형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예방과 소방 안전관리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많은 시민이 밀집하는 전통시장과 경로당 등 다중 집합 장소에 위험 요소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등 화재 예방에 주력해 달라"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정읍시, '공동체 어울림한마당' 행사 열어

'제12회 정읍시 공동체 어울림한마당' 행사가 지난 10일 내장산동 공감플러스센터에서 열렸다.

정읍시가 주최하고 정읍시공동체협회(김영수)가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20여 개 공동체와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공동체 어울림한마당 행사는 지역공동체가 다양한 분야에서 맺은 성과를 공유하고, 공동체와 지역주민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공동체들의 활동 촉진과 경쟁력 강화로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육성

함은 물론 공동체 간 연대와 협력을 통한 네트워크를 구축해 코로나19로 힘들었던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행사장에서는 참여 공동체들의 상품 전시와 활동사진 전시를 통해 그간의 활동 과정과 사례를 함께 나누고, 그 성과와 가치를 공유했다.

또 베이킹 체험과 꾸러미 제작 체험, 드론 축구 등의 이색 체험 부스가 운영됐으며, 추운 날씨에 어울리는 따뜻한 어묵과 감남, 전 등 공동체의 손맛을 담은 먹거리 부스가 운영됐다.

아울러 공동체 초청공연과 다양한



장르의 문화공연이 펼쳐져 행사장을 찾은 주민들의 흥을 돋웠다.

특히, 자율방범대의 협조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했으며, 주차장 안전요원을 배치해 교통불편을 최소화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행사가 지역공동체와 주민들이 어우러져 서로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됐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 고창군, 지역인재 육성 연말 장학금 기탁 줄이어

제)고창군장학재단에 따르면 지난 9일 고창컨트리클럽 2000만원 등 비롯한 9개 업체에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전달했다.

전주지역 개인택시 모인인 고창고인돌항우회원님들도 성금 중 100만원은 장학재단에, 50만원은 불우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전달했다.

또 일우건설 박영조 대표 200만원, 선운개발 강창연 대표 500만원, 으뜸엔지니어링 최학원 대표 200만원, 고인돌조경건설 김경철 대표 100만원, 나우건축 김성규 대표 200만원, 동남비이오 김정환 대표 1000만원, 고창생

물권공공스포츠클럽 200만원 등 이날 4500만원이 장학금으로 기탁됐다.

고창군장학재단에 올해까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모두 48명이 총 1억 800여 만원을 보내왔다.

기탁자들은 "고창의 밝은 미래를 위해 이 기탁금이 지역 인재양성에 힘이 되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고창군장학재단 심덕섭 이사장은 "고창 발전을 위한 오늘 귀한 마음을 담아 기탁해 주신 장학기금은 우리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장학금 운영 등 다양한 장학사업에 사용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